

## 교제와 나눔

\*\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\*\*

- 11월 16일 주일, 12월 7일 주일은 Teestube에서 예배드립니다.
- 11월 나라주일: 다음주일
- 대림절 첫 주일: 11월 30일 주일
- 각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총회로 모여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바이블12 속강: 수요일 21시 30분 예언서4, 온라인
- 라합2 나라모임: 11월 12일(수) 10시 30분 호텔 KO
- 겨자씨 모임: 11월 15일(토) 15시 Teestube
- 별세: Frau Gisela Oppermann(Patrick Oppermann교우의 모친, 11월 2일, 69세)
- 방문: 신하나
- 생일축하: 박승은, 이하임, 김지훈, 이하나
- 뒤셀도르프한인교회 박용환 목사 취임감사예배: 다음 주일 11시 30분

Eichenkreuzstr. 26, 40589 Düsseldorf

### ◆ 말씀일기 일정

일/스7:1-10	월/스7:11-28	화/스8:1-20	수/스8:21-36
목/스9:1-8	금/스9:9-15	토/스10:1-8	일/스10:9-44

### ◆ 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
성경 300독 대행진: 254독

### ◆ 예배위원 안내 ◆

	11월 9일	11월 16일	11월 23일	11월 30일
예배기도	서정인	김한진	박성희	김종권
안내위원	예배부			
봉헌위원	장혜진 백윤정			
애찬위원	밥상 셋	밥상 넷	밥상 다섯	밥상 여섯

42-45호

2025년 11월 9일



Presbyterianische  
Missionsgemeinde  
Düsseldorf e.V.

“네 자신을 연단하라”(딤전 4:7)



주일예배 11:45 Teestube 소망방  
14:00 Mutterhauskirche  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  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  
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소망방



1983년 5월 8일 창립

담임/ 손교훈 목사 Pastor Dr. Kyo-Hoon Sohn  
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

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
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## 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[duemission.de](http://duemission.de)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# 주 일 예 배

인도: 손교훈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	왕이신 나의 하나님	다 함 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		인 도 자
※찬송/Gemeindelied	5장	다 함 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		다 함 께
성시교독/Wechselwort	교독문 29번	다 함 께
찬송/Gemeindelied	397장	다 함 께
기도/Gebet		서정인 집사
찬양/Chor	주 안에서 나 평안해	찬 양 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	에스라 7:1-10	인 도 자
설교/Predigt	하나님의 손이 함께	손교훈 목사
찬송/Gemeindelied	391장	다 함 께
봉헌/Kollekte		다 함 께
교제/Bekanntmachung		다 함 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		다 함 께
※축도/Segen		손교훈 목사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## \*\*교회 구조\*\*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

IBAN: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

## ▶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에스라 5:1-17 '다시 시작해' ◀

십 수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. 그 중심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, 즉 여호수아가 있었고,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였다(1-2).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고, 그 예언을 듣고 일어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,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복이었다.

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, 특히 “다리오 왕 제 이년”(4:24)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급하게 그리고 자주 말씀하신다.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. 반대자들의 방해로 십 수년간 손을 놓은 채 지내 왔지만, 더 이상 주저 앉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.

사랑은 모험이다.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다리오 왕의 명령이 아니다. 다리오의 명령은 고레스의 명을 재확인한 것이요(6장), 그것이 가능토록 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불들린 돌아온 사람들의 모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었다. 특히, “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돋더니”(2b) “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”(6:14)하게 되었다.

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.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교우들에게 들려주고, 보게 하여 지어져 가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세워가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, 지혜를 주는 일이다. 그래서 나는 더욱 예언, 즉 말씀의 은사를 사모한다. 보는 눈이 크게 열리기를, 전하는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기를....기도한다.

## ▶ 지난 주 봉헌 내역(11월 2일-11월 8일) ◀

십일조	월정현금	감사 및 목적현금
우선화, 민명희, 오수향, 권덕기, 한상철, 단주현, 한정우, 신형만, 서민규	서민규	김명희(생일), 무명1 크리스티안(생일)
총액 2.688,20유로 = 1.148,20(예배당) + 1.540,00(온라인)		